

용문·덕소·운정 등 경의중앙선 따라 5800가구 분양 봇물

연내 9곳서 총 5814가구 공급
상대적 저평가로 분양가 저렴
서울 접근성도 우수해 관심 ↑

용문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덕소 7구역 라온프라이빗 등 주목

서울 용산과 경기도 파주, 남양주, 양평을 연결하는 경의중앙선 역세권 주변에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경의중앙선은 임진강역, 문산역부터 서울역, 용산역, 용문역, 지평역까지 운행되는 수도권 전철노선이다. 기존 수도권전철 경의선과 전철 중앙선을 통합한 노선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서북권과 동부권을 이어주는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양평에서 상봉역까지 각각 1시간대에 접근 가능하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내 경의중앙선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9곳, 5814가구다. 구간 별로는 ▲용문역 1개 단지 740가구 ▲양평역 2개 단지 1602

<경의중앙선 인근 주요 분양단지>

지역	단지명	건설사	분양일정	총 가구수
용문역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반도건설	11월	740가구
덕소역	덕소 7구역 라온프라이빗(가칭)	라온건설	11월	295가구
도농역	남양주 도농 반도유보라	반도건설	12월	194가구
운정역	파주 운정2차 대방노블랜드	대방건설	12월	515가구
문산역	파주 문산역 동문굿모닝힐2차	동문건설	11월	1,879가구

덕타아파트·각사(총 가구수)

가구 ▲도농역 1개 단지 194가구 ▲덕소역 1개 단지 295가구 ▲운정역 3개 단지 1104가구 ▲문산역 1개 단지 1879가구 등이다. 경의중앙선은 78년부터(통폐합이전) 운행된 오래된 전철 중 하나로 노선을 따라 구도심 재개발 및 도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받던 파주와 고양시는 GTX-A노선 호재, 양평과 남양주는 고속도로 호재 등 교통호재까지 잇따르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의중앙선 인근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수혜 지역 매매가 상승은 물론이고 신규 분

양시장 청약경쟁률도 치열하다”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데다 교통 개발호재까지 있는 만큼 내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주요 분양단지인 용문역 인근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달 ‘양평 다문지구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59~84㎡, 740가구를 분양한다.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송파~양평고속도로(에비타당성 조사중)가 예정돼 개통시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양평 지역에 처음 선보이는 반도유보라 브랜드로, 지역내 최초로 헬스케어·교육특화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며 “경의중앙선 초역세권 입지에 청정계획도시 다문지구 내 유일한 아파트”라고 말했다.

덕소역 인근에서는 라온건설이 이달 ‘덕소 7구역 라온프라이빗’ (가칭) 59㎡~84㎡, 295가구 중 24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부속 덕소 7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경의중앙선 덕소역과 롯데마트, 덕소유수지생태공원이 가깝다.

문산역 인근에서는 동문건설이 이달 ‘문산역 동문굿모닝힐 2차’ 1879가구를, 운정역 인근에서는 대방건설이 12월 ‘파주 운정2차 대방노블랜드’를 분양한다. 공급 규모는 파주시 다울동 운정지구 A35블록에서 60~85㎡, 515가구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운정호수공원이 가깝다. 인근에 GTX-A노선(2023년 예정)과 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호재가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김포, 4개월간 2억 ↑

천안·부산 등 매매가 천정부지
김포 풍무푸르지오 37% 올라

정부가 6·17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규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출자격을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덜한 김포, 천안, 부산, 울산 등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오랫동안 저평가 받아 왔던 김포시의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김포시에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격도 경종 뛰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2.3% 올랐다. 경기도 평균상승률 7.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푸르지오’ 전용 84㎡형이 지난 달 18일 7억59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6·17대책 발표 이전 최고 호가는 5억5500만원(6월13일, 19층)이었다. 4개월 동안 무려 2억 원 가량(36.8%) 오른 셈이다.

지방의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부산시에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596건으로 8월(4473건)대비 25.1%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동월(2615건) 대비 무려 2.1배나 많은 수치다.

주택수요가 늘면서 아파트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마리나1차’ 전용 84㎡형이 지난 9월 12억5000만원(7층)에 팔렸다. 이 주택형의 6월 최고 거래가격이 9억2000만원(11층)인 점을 감안하면 석 달새 31.6%(3억3000만원)이나 올랐다.

/정연우 기자 ywj964@

미래에셋대우 한전 원화 ESG 채권발행 주관

미래에셋대우는 한국전력 원화 지속 가능 채권 발행의 대표 주관사로 참여해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국내 에너지기업 최초의 2년 연속 지속가능채권 발행 건으로 규모는 총 2000억원에 달했다. 만기별로는 2년물 3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700억원이었다.

발행금리는 2년물 1.019%, 3년물 1.137%, 5년물 1.432%로 국내 에너지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한 지속가능채권 중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속가능채권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 사회 지원 프로젝트나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친 사회적 정책 기조에도 공조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공기업과 은행권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금 조달의 방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전국학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채권솔루션본부장은 “미국 대선 불안감과 국제 수급 부담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해외 중앙은행과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발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성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신한금융투자 ‘환급 구조대, 내 월급을 구해줘요’

IRP 계좌보유 고객 대상 이벤트
마스·커피 기프티콘 등 증정

신한금융투자가 ‘환급 구조대, 내 월급을 구해줘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기존 계좌를 보유한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10만원을 입금하면 KF94마스크를 10매 증정한다. 이번



트 기간 내 신규 및 기존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100만원을 입금하면 커피 기프티콘 1장, 300만원 입금 시 3장, 700만원 입금 시 7장을 증정한다.

신한금융투자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국내 최저수준으로 연 0.2%(적립금 1.5억원 초과)~0.25%(적립금 1.5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개인형 퇴직연금은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앱 ‘신한알파’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과 동시에 바로 ETF와 리츠(REITs) 매매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대신증권 ‘트라이 에브리워크’ 이벤트

대신증권이 국내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2주 이상 주간 합산 주식 거래대금이 5억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트라이(Try), 에브리워크’ 이벤트를 12월 11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0원을 넘는 등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마련했다. 주간합산으로 국내주식을 5억원 이상 거래한 주가 2주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매주 5억원 이상 거래한 주가 4주 이상, 6주 이상이면 각각 10만원(30명), 15만원



(20명)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누적거래대금 상위 10명에게도 현금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단, 각 상금에 대해서는 중복 당첨이 불가능하다.

대신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MTS, HTS,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